

‘상생’ 앞세운 자동차 산단 우후죽순...“광주만 희생양”

정부의 ‘상생 지역일자리’가 자동차에 집중하며 ‘상생’의 첫 출발점이 된 광주형 일자리가 되레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광주 광산갑)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까지 발표한 상

김 의원은 급조된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자동차에 치중되면서 노사민정의 사회적 타협을 통해 5년 만에 성사된 ‘광주형 일자리’는 애꿎은 희생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가 첫 적용된 광주완성차 공장의 경우 한계

주행 모델에 집중돼야 할 자동차 부품산업들이 구미와 울산 등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주도하던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조정해야 할 지역간 산업배치에는 나몰라라 하고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전국 6곳 자동차 관련 상생형 일자리 구상 김동철 “상생형 일자리 자동차밖에 없다” 지적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7곳 중 밀양(뿌리산업)을 제외한 6곳이 자동차 관련 산업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소형SUV), 구미(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울산(전기차 부품), 강원(전기 화물차), 군산(전기차), 부산(전기차 부품) 등이다.

수요에 도달한 소형 SUV 모델만 배치, 지역 청년들을 위한 제대로 된 일자리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우려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상생의 이름으로 전국을 자동차 산업단지로 도배할 했다”며 “자동차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 극대화를 위해 광

한편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공장 합작법인인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빛그린산단에 연 10만대 규모의 생산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법인은 현대차로부터 경형스포츠클리터차량(SUV)을 연간 7만대 위탁받아 생산하고, 이를 위해 정규직 1000여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지난 달 23일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된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올 연말 공장 착공에 들어가 2021년 하반기 완성차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 내달 23일까지 김장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매주 토요일·일요일 참여 가능...2개 나눠 진행



광주시는 11월 23일까지 광주 김치타운에서 ‘김장문화 전승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 9월 17일부터 시작된 체험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김장김치교육과 김치응용요리교실 2개로 나눠 김

장문화 강의, 실기실습, 맛 평가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되는 등.
대한민국 김치경연대회 대통

령상 수상자들이 강사로 참여해 전통김치에 대한 역사, 문화, 재료 선정방법, 김치 담그기 등을 교육한다.
이를 통해 전통김치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하고 김치의 소중함과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김장김치교육과 김치응용요리교육 참여는 선착순 20명까지 가능하다. 프로그램 일정과 세부 내용 등은 광주김치타운관리사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광주시는 25일부터 27일까지 ‘제26회 광주세계김치축제를 개최한다. 12월에는 각 가정과 기업체에서 김장을 직접 담아갈 수 있는 ‘빛고를 김장대전’도 실시한다.

서은홍 기자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전남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97%’

전남도가 지난달 말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을 집계한 결과, 관리 대상 4693농가 중 97.5%(전국 88.9%)인 4576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세부 추진 상황은 인·허가 완료 2329 농가(49.6%), 인·허가 중 491 농가(10.5%), 설계 중 1756 농가(37.4%), 폐업 예정 117 농가(2.5%)다.

시·군별 추진 실적은 여수·순천·해남·함평 4개 자치단체가 100%로 가장 높고, 영암 99.8%, 보성 99.7%, 고흥 99.1%, 곡성 98.8% 순이다.

각 시·군에서는 지난 9월 27일까지 인허가 접수 등 적극 진행 중

여수·순천·해남·함평

4개 시·군 추진율 100%

이행기간 연장 추진해

인 2247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이행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시·군은 연장 대상 농가를 확정하고, 축협과 함께 10월 11일까지 농가 신청서 작성을 지원한다. 축협에서는 농가를 방문, 농가 확인·서명 후 시·군 환경부서에 11월 13일까지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

시·군 지원협의체는 10월 14일부터 1개월간 농가별 대면 평가를 할 계획이다. 농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협의체에서 최종 확정 통보하게 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양돈농가는 축협에서 우선으로 농가 확인 후 시·군에 제출하게 되며, 대면 평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진행 상황을 보면서 별도 추진한다.

추가 이행 기간이 부여된 농가는 정부의 제도개선과제 32개 항목에 대해 추가 연장 기간까지 적용된다. 주요 제도개선과제는 가축사육거리제한 유예, 이행강제금 경감, 축사 건폐율 확대 등이 다.

배운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연장을 희망하는 농가는 시·군에 문의해 추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추가 이행 기간까지 축사 인·허가를 완료하는 등 철저히 추진해주시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구, 하반기 체납징수 나선다

광주 동구가 2019년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을 일제 정리한다.
동구는 지난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34억여 원을 대상으로 일제정리에 들어간다. 징수목표는 20억여 원이다.

이에 따라 동구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꾸려 고액체납자를 집중관리하고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자동차·채권 등 신속 압류 △고질·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자동차·부동산 압류재산 적극적 공매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는 명단공개·금융신용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모든 제재를 동원하고, 체납차량 번호판은 상시영치반을 운영해 단속을 강화한다.

서구 빛고를 국악전수관 개관 17주년 기념 공연

광주 서구가 빛고를 국악전수관 개관 17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이후 4시부터 3부에 걸쳐 특별공연을 개최한다.

광주를 대표하는 국악의 신심로 자리 잡은 서구 빛고를 국악전수관이 개관 17주년을 맞아 특별기획 국악한마당을 개최하게 된 것.

이번 특별공연은 총 3부로 구성, 제1부에서는 가야금, 대금, 해금, 장구, 고법, 민요, 판소리, 가야금병창, 정가 등 9개반 국악문화학교 수강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뽐낸다. 제2부에서는 공로패 및 모범상패 수여 등 기념행사가 이어지고, 제3부에서는 어린이국악교실 수강생의 가야금연주와 김순경 가객의 시조 및 이영애 무용문화재의 가야금병창 공연이 펼쳐진다.

남구, Walker를 위한 전문 양성교육 4일간 실시

광주 남구는 일상 생활 속 걷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 걷기 지도자 전문 양성교육을 4일간 릴레이 실시한다.

7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걷기 지도자 양성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걷기 분야 전문가와 함께 하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주민 35명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마련됐다. 남구는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해 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문제를 체크하고, 초보자 수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걷기 운동의 중요성과 효과를 널리 알리는 전문 지도자로 양성할 방침이다.

북구, 가족과 함께하는 별밤캠프 개최

광주 북구가 맑고 투명한 10월의 밤하늘을 관측하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과학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북구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국립광주과학관 별빛누리관에서 관내 초등학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1박 2일 별밤캠프’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국립광주과학관과 공동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개관해 세계적 수준의 천체관측 시설을 갖추고 있는 ‘별빛누리관’에서 우주·천문분야 영재교육 활성화 및 가족과 행복한 가을밤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타 행사참여 관련 문의사항은 국립광주과학관(☎062-960-6260) 또는 북구경제종합지원센터(☎062-410-8483)로 연락하면 된다.

광산구 첨단1동, 주민이 만든 세번째 마을축제

9일 광주 광산구 첨단1동 마을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용수)가 쌍암공원에서 마을축제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개최한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이번 축제는, 기획부터 홍보, 무대 구성·설치까지 주민참여로 꾸며진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되는 축제는, 한글날 골든벨을 시작으로 소방안전 체험, 플라마켓, 먹거리장터, 주민한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특히, 아파트 중고물품 장터를 열어 아껴 쓰고, 다시 쓰는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임형택 기자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